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 담당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2/10(토)	12/12(월)
우경섭 안수집사	박재동 안수집사	이승근 재직안수집사	김영식2 안수집사	이윤익 안수집사	정준수 안수집사

2022년 12월 6일(화)

이른아침예배

(대림절 묵상)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38장
기도	우경섭안수집사
성경봉독	시편 137장 1~9절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설교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장지훈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370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시편 137:1~9>

- 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 2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 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 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 6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 7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혈어 버리라 혈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혈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 8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 9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12월 6일(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든, 슬픔의 길이든, 소망의 길이든, 절망의 길이든, 어느 자리에서든 끊임없이 주님만 노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 한복판에서도, 끝내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정하신 회복의 날을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우리 새문안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끊임없이 이어가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기신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제직, 모든 교역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은총의 빛을 비추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몸 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만남과 모임의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매사 하나님으로 인해 순적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혼란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연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손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싸움과 전쟁, 사건과 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주님의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평, 자유가 임하는 날을 속히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역과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